

## 혼돈의 순간, 전일적 실존의 활로

### The Moment of Chaos: A Quest for Holistic Engagement

2025.9.19.

제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PBF 2025 기념사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 미원평화상 제정을 회고하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흔네 번째 세계평화의 날입니다.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염원하고 평화의 뜻을 기리는 날입니다.

지난해 평화의 날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원평화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The Elders가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설립자 넬슨 만델라의 정신에 깃든 성찰적 인간애.

억압마저 관용으로 승화했던 초극(超克)의 정신세계.

그 정신에 기반해, 사회 형평과 기후 정의, 인류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The Elders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경희의 공적 실천은 시작은 다르지만, 지향 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통정(統整)된 인격의 지구적 실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류의 “문화세계.”

그 지향과 철학을 기반으로, 문명사적 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의 시대 상황은 그 전통 위에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깊어지는 지구 행성의 기후 위기.

기아와 빈곤.

균열의 현실 정치.

파괴적 과학기술과 핵 대전 가능성...

문명 진전은 거듭되지만, 깊어지는 위기의 징후는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화 혹은 붕괴.”

시대에 던져진 실존적 화두입니다.

이번 평화의 날 주간에는 세계가 대면한 지구적 혼돈의 실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한 실천 담론을 논하고, 희망의 조건을 찾아 나섭니다.

국내외 여러 기관 인사가 이번 평화 주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서 18개 기관 소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기획 그룹 여러분도 자체 회의를 성심껏 준비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결과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를 가능케 해주신 미래문명원과 법인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경희학원 각급 기관 교무행정 책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희 구성원과 북미주 동문 여러분도 지금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그간 개최하지 못한 북미주 동문회가 오랜만에 열렸다고 합니다.  
재미 미원평화상 후원재단과 경희국제재단 주관으로 미원평화상 후원을 위한 뜻깊은 자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기로에 선 미래: 기후, 핵, UAP**

최근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인류의 실존적 위협을 기후, 핵, UAP(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를 소재로 소개해 왔습니다.

오늘과 같은 평화의 날에, 학부 초청 강연 등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진화 혹은 절멸”

“평화 혹은 붕괴.”

이 시대에 주어진 실존적 위기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후, 핵, UAP.

실상은 무엇인가?

시대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들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소식을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달 스페인은 40~50도 사이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불행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불과 두 달 동안 1,200여 명의 열파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그리스와 포르투갈, 프랑스, 폴란드...  
유럽 많은 나라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야를 넓히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번 여름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기후 변화에 거의 무방비 상태인 개도국 상황, 그 외 지역도  
함께 살피면 인명과 재산 피해, 지구 환경과 생태에 드리운 피해는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례적인 열파로 나날이 드세지는 극한 호우와 폭풍.  
가뭄과 작황 실패.  
식량과 물 부족.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란...  
지구적 피해는 정확한 실상 파악조차 힘들 것입니다.

약 반세기 전 일입니다.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 상원에서선 기후 변화를 소재로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1985년 미 상원 청문 석상에서 나선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470도를 오르내리는 금성이 그렇게 된 이유는 대기 중 과도한 이산화탄소(CO<sub>2</sub>) 농도로 인한 강력한  
온실효과 때문입니다.”  
1988년엔 또 다른 상원 청문 자리가 있었습니다.  
NASA 행성 과학자 제임스 헨스 박사는 이런 요지의 증언을 남깁니다.  
“지금 추세라면 2050년경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1.5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임계점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임계점 1.5도.’  
이젠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그 지점을 넘게 되면 앞서 열거한 극한의 기상 이변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게 됩니다.  
1980년대 말 출범한 유엔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설립 이래 이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수많은 활동 끝에 성사된 2015년 파리협약.  
그 협약문에 이런 선언적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섭씨 2도에 훨씬 못 미치는 섭씨 1.5도 상승으로  
막아보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경고성 선언은 실효성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남깁니다.

올해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1.5도를 초과했다.’  
그런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길게는 40여 년, 짧게는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노력과 대책, 각국 정부의 탄소 저감 목표 설정...

왜 그런 노력에도 오늘과 같은 상황이 초래됐을까.

몇 가지 성찰적 과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후 예측 모델은 견고했는가.

탄소 저감 목표만으로 충분했는가.

각국 정부 동참 목표에 턱없이 부진한 실적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이런저런 과제를 남겨둔 채, 지구 행성의 기후 변화는 궤도를 벗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표류를 넘어, 이젠 큰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60만 개에 해당하는 열에너지가 매일 추가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로 인해 과열되는 대기와 해양과 지표 온도 상승.

이 현상은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거의 모든 생명체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동식물의 멸종이 거듭되고, 지구 환경은 나날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국 정부의 탄소 저감 목표는 아직도 언젠가 이뤄져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화 이래 무엇보다 우선시됐던 경제와 성장 논리.

이를 둘러싼 현실 세계의 정치 논리.

“문제는 경제야!”

오래된 이 ‘정치적 유행어’를 여러분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쟁적 국가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로, 규범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한 현실 세계의 정치 논리.

그 논리 구조는 그 밖의 거의 모든 공적 사안을 차순위로 돌리는 시대사조를 낳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탄소 경제, 탄소 문명은 지속돼 왔습니다.

‘진실과 거짓’으로 양분된 오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기후학자들이 말해온 ‘거대한 지체’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경고를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기후 재앙이 지평선에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구 행성을 두고 러시안룰렛을 하고 있다.”

초강경 어조의 경고들입니다.

경고라기보다는 직책상 수많은 자료와 정보를 접했을 유엔 수장의 마지막 절규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위기의 시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실상은 전면적이고 총체적입니다.  
어느 기후학자의 말처럼, 기후 안정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지구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국제사회 소식은 이와 상반된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젠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듯한 우크라이나의 비극.  
지금도 계속되는 가자 지구와 예멘의 비극.  
나날이 긴장을 더해가는 국제사회의 군사·외교 관계.  
인류의 명운보다 '자국만의' '자국 우선의' 정치 논리가 무엇보다 앞섭니다.  
최근 일고 있는 '관세 전쟁'은 그 추세를 더한층 거칠게 합니다.

지난 몇 년 우리는 들어야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선 핵무기 사용도 불사한다.”  
“3차 핵 대전”이란 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덧씌워진 지구적 혼돈과 전운의 기류.  
그 유례없는 실존적 위기 앞에 인류는 지금 또 다른 충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두 주일 전, 미 의회에선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UAP 정보 투명성과 공개를 주제로 한 청문 자리였습니다.  
2023년경부터 모두 세 차례 열린 하원 청문회 후속 자리였습니다.  
진실 서약 후 청문에 나선 5명의 인사 중 한 인사의 증언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1967년과 1982년, 미국과 러시아 핵 기지에 두 차례 UAP 사건이 있었다.  
핵탄두 발사 시스템을 작동시키기도 하고, 작동 불능으로 만들기도 한 사건이다.  
미국의 경우, 핵탄두 발사 시스템을 전혀 작동할 수 없던 긴급 사태가 있었다.  
러시아 경우, 이와 반대로 발사 시스템이 활성화돼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부지불식간에 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UAP.  
오래전부터 수많은 목격담이 있어 왔지만, 미 정부와 의회가 최근 일부 상황을 공개하면서 일반인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3~4년.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된 3차례의 청문회에서 나온 전직 군 정보기관 인사, 해군 제독, 펜타곤 UAP 조사 책임자, NASA 인사 등의 증언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UAP는 실재한다.”  
“추락한 UAP 기체엔 인간 아닌 지적 존재 NHI(Non-human Intelligence)가 있었다는 보고를 접했다.”  
“UAP는 지상뿐 아니라 해저에서도 목격된다.”

그런 증언 후에 새롭게 제기된 UAP 핵 시설 개입설.

그간 UAP 연구자 사이에서 회자하던 ‘전 세계 핵 시설, 군사 민감 시설 등에 UAP가 자주 출몰한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UAP 관련 기류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 미 대통령과 전직 정보당국 수장들이 TV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UAP 실재설.

지난 11월 말 뉴저지 야간 상공에 연일 두 주일 이상 대거 출몰하던 “미확인 드론” 사건.

출몰 지역 주민의 불안감 호소와 지자체 단체장들의 강력한 정보 공개 촉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현직 미 국가정보국장의 발언.

대선 직전 ‘대통령이 되면 UAP 문제를 다루겠다,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온라인 대담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미 대통령...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간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이 지구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시대에 등장한 UAP 사안. 오늘의 상황은 과거와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기후, 핵, UAP.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실존적, 존재론적 충격 속에 인류의 미래는 어떤 진화의 여정을 걷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묻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랜 역사의 무게, 인식의 관성 속에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명사적 난제.

과거와 사뭇 다른 도전적 과제를 묻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전적 과제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시대에 주어진 전환적 과업이 아닐까 합니다.

### **전일사관(全一事觀)의 역사적 중요성**

‘문제를 야기한 시선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오래전 한 물리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시선과 문제 풀이의 연관 관계.

풀려고 노력하지만, 풀리지 않는다면...

관점을 달리해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실존적 도전 과제인 기후, 핵, UAP.

이를 위한 새로운 생각의 지평을 여는 일.

이에 근거해 미래를 새롭게 일궈 가는 일.

그 일이 전환의 시대를 맞은 오늘, 새로운 역사적 함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학자들은 말해왔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3도 이상 오르면 문명은 기능을 상실한다.’

‘5도를 초과하면 지구상 거의 모든 동식물은 멸종 사태를 맞게 된다.’

이미 감당하기 버거운 1.5도의 기후 변화.

그 너머 기온 상승...

시대의 긴박성, 절박성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붕괴의 시점은 언제일까.

정확한 예측을 누구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 전개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가변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도래한 위기 국면을 놓고 주저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책은 무엇일까.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간의 역사는 말합니다.

정부 간 협의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 역사에 비추어 이젠 자명해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국제사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의 공공선인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발길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그 길은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시선, 관점 변화를 요청합니다.

개인 차원의 절전 노력과 에너지 감축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미래를 기약하기는 어렵습니다.

드세진 지구적 열파의 파고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시선을 달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노력은 이어가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긴급성을 갖고 사회적 실천, 지구적 실천을 단행하는 일.

그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기후학계에선 오랜 기간 탄소 포집을 말해왔습니다.

대안으로 대기 중 머물러 있는 탄소, 특히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과학기술에 무게를 실어 왔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햇빛을 차단하는 '양산' 개념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바다에, 극지 해동 지역에 태양열을 반사하는 거대 장치를 설치하자는 안입니다.

일례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기후 학계, 전문가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이유는 명료해 보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누가 이 모든 일들을 지원할 예산을 감당해야 할까.

우리 사회, 국제사회는 준비돼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지구 공공 의제로 설정하는 힘은 시민, 미래를 소중히 생각하는 시민의 시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국가 공공 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세상 정치(politics of the world)'가 담당해 왔습니다.

위임된 권한으로 입안과 집행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정치는 그 기능 수행 과정에서 민심을 읽어냅니다.  
민심 변화가 일어날 때, 권력 행사의 방향성을 잡습니다.  
민심, 시민의 민심...  
그 향배에 따라, 변화는 전환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주어진 시민의 책무는 미래로의 책임입니다.  
더 나은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후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은 현실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명 붕괴의 위험.  
절멸의 위험.  
다가올 위협이 자명해진 오늘.  
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노력은 후손에 물려줘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적 과업입니다.  
우리 일상만큼이나 중요한, 어찌 보면 더 중요해진 사안은 붕괴와 파국을 막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속한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선의 책무’  
그 책무가 역사 변화의 한 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소재, 핵과 UAP 사안도 내용과 역사는 다르지만, 본질은 유사해 보입니다.  
문제 핵심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인간의 미래,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시선과 함께 이들 문제에 내재하는 종합적 지식과 정보를 숙지하는 일.  
이를 근거로 이해와 성찰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  
그런 시민의 노력이 이뤄질 때, 핵전쟁 가능성과 인간 정체성의 우주적 맥락 이해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대 철학과 종교 철학은 인간과 자연의 심연을 성찰했습니다.  
이를 담아낼 지식과 실천적 지혜의 중요성을 말해왔습니다.  
근래 들어 다시 주목받는 양자 과학의 인식론적 기초는 우주 근원인 아원자 세계, 그 세계에 내재하는 무한 연결성과 중첩 가능성을 말해왔습니다.  
그 속성의 궁극적 결맞음 상태를 우리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경희의 전일 사상, 전일사관도 그런 전제와 함께해 왔습니다.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은 없다.’  
‘세상만사는 상관상제, 상관상승의 연결과 관계의 고리 속에서 변화와 생성을 거듭한다.’  
‘역사는 결국 의식의 산물이다.’

기후, 핵, UAP.  
이 사안에 얽힌 실존적 도전 과제는 연결과 관계, 의식의 중요성을 파악하려 노력할 때,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사를 이해하는 인간 실존의 의식.  
그 의식의 결과인 실존의 또 다른 지평을 여는 시선.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가는 일은 곧 시대가 요청하는 전환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양자 과학의 선각 막스 플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We cannot get behind our consciousness.”

“우리는 우리 의식 너머 세계로 진입할 수 없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의식 위에 변화와 전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놓일 때, 시대에 주어진 역사의 미래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 **맺으며: 함께하는 전일적 실존의 활로**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날입니다.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전쟁과 분쟁 없는 평화.

평온함을 유지하는 평화.

그 평화의 전통적 개념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대립과 갈등, 충돌이 우리 삶의 현장 깊숙이 파고든 오늘의 현실은 그 의미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웁니다.

전환기를 맞은 오늘의 시점은 그러나, 그 막중한 평화의 과업과 함께 또 다른 평화의 지평을 찾아 나서라는 과업을 요구합니다.

시대의 과제.

진화 혹은 절멸, 평화 혹은 붕괴란 유례없는 도전적 과제를 마주한 이 시대는 평화의 더 넓은 의미를 헤아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문명의 평화.

인간과 생명, 지구 행성 간의 평화.

혹은 그 너머 미지의 우주적 실재, 가능성과의 평화.

그런 ‘사이’와 ‘관계’의 결맞음의 승화 과정을 일궈내는 일이 시대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의식.

내 안에 존재하는 실존.

그 의식과 실존의 세계로부터 평화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주문하는 과업일 것입니다.

의식 혹은 실존.

그 원천에 관한 시각은 여러 갈래일 수 있습니다.

과학계 일각에선 우주적 질서, 혹은 무질서에 존재하는 궁극의 상태, 양자 장과 진공에 깃든 정보와 에너지의 원형을 말합니다.

동양 종교 철학에선 그 모든 것의 시원(始原), ‘있으면서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有而無, 非有非無) 공의 세계’, ‘창공의 원형, 아카샤를 논합니다.

무의식 연구자들은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의 기저에 일관하는 ‘유일한 초월적 현실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견해든, 공유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 만사에 중요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깃든 의식, 그 실존의 세계와 가능성입니다.

의식의 세계.

이에 깃든 실존의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적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의 의미는 막중해 보입니다.

이례적인 문명사적 위협이 운위되고 있습니다.

그 이례적인 위협 너머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일.

위기를 기회로 승화하는 일.

그 도전적 미래로의 여정은 시대의 문제를 의식하고, 실존의 기반을 공유해가는 시선의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필요의 공적 실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